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본문 <신명기 6장 1절 ~ 9절>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낱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은 '쉐마'라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쉐마를 하루에 두 번씩 암송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들을 모아놓은 탈무드 중에 하나에서는 유대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 그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만 사랑하게 위한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땅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누리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1. 하나님을 사랑하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분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켰는지를 깨닫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떤 기준으로 순종했는지 우리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떤 행동들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 때문에 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성이 참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 한다는 것은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어올 때,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것, 전화를 받을 때에, 운전과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말 뿐만 아니라, 심정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한 것이고 정성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하루되시길 축복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 안에 하다못해 공기라도 채워져 있듯이 우리 마음도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무런 경계 없이 하루를 살면,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 역시 금방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자연스럽게 비울 수 없는 것이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적으로 채우는 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을 떠올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가정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 쉽게 노출되도록,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도 말씀을 기록해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2.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